

종부세 위헌소송으로 우리 재산권을 지킵시다!

관련기사 : 국민일보, 「종부세 납세자 123명, 위헌소송 간다」

국민일보

PICK①

종부세 납세자 123명, 위헌소송 간다

입력 2021.11.22. 오후 10:37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불어나자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23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단에는 법조인 17인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강훈(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현(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에는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참여방법] ① 네이버 검색창에 종부세 위헌소송 모임 입력 ② 아래 QR코드 입력 ③ 아래 인터넷주소 입력



NAVER

종부세 위헌소송 모임

검색

▶ 종부세 위헌소송 관련 인터넷 주소 <https://open.hearimlaw.com>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지난 해보다 28만 3000명이 더 늘어난 102만 7000명에게 8조 5000억원이 넘는 종부세가 매겨졌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주택 가격 폭등, 증세 목적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및 세율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액수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을 팔아야 돈이 생기고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세금 납부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세금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됩니다.

공정하고 적절한 조세는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만

중과세는 국민의 공간을 피폐화하여 파국을 초래한 역사를 보아 왔습니다.

과중한 조세를 바로 잡는 일은 결국 나라를 바로 가게 하는 국민 모두의 임무이며 우리가 만든 헌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빼앗긴 우리 재산권을 되찾읍시다.

※ 저희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조세와 헌법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리인을 통하여 조세심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상태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